



미국 자동 예산삭감 프로그램, 시퀘스터 발동과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미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1조 2,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시퀘스터(sequester)가 2013년 3월 1일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.
 - 시퀘스터(sequester)는 「강제몰수」라는 뜻으로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을 강제로 삭감하는 것을 의미함.
 - 미국 정치권은 지난 2011년 8월, 국가부채 상한선 상향조정 시 2013년 초부터 10년간 정부 재정적자를 총 1조 2,000억 달러 감축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으나 2012년 말 재정절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 조치의 시행시기를 2013년 3월 1일로 연기함.
 - 시퀘스터가 예정대로 발동되는 경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권의 합의가 요구되었으나,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13년 3월 1일 시퀘스터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짐.

-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8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공무원 무급휴가, 실업급여 삭감, 국방비 감축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.
 - 시퀘스터로 인한 2013년 예산 삭감규모는 정부회계연도가 끝나는 2013년 9월 말까지 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, 2014년부터는 매년 1,10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됨.
 -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으로 100만 명이 넘는 정부 기관 종사자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, 이 중에는 연방항공청 직원과 소방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 - 또한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380만 명의 실업수당 대상자들의 실업수당도 종전의 10% 수준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임.
 -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시퀘스터로 인해 2013년에만 46억 달러의 국방비가 삭감될 것이라고 밝히고, 국방비가 다른 예산보다 많이 삭감될 전망이기 때문에 시퀘스터가 미국의 국방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함.

■ 경제학자들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 GDP성장률이 0.5%p에서 1.0%p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반면 시퀘스터가 발동되더라도 경제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.

- 전미경제인협회(NABE)가 경제학자 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5% 이상이 시퀘스터로 인해 미국 GDP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감소폭은 0.5%p에서 1.0%p 수준으로 전망함.
- 그러나 예산 삭감이 10년에 걸쳐 전 영역에 분산되어 나타나고 연방 재정 집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퀘스터가 발동되더라도, 경제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.
- 언론에 따르면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은 몇 주간 예산 자동 삭감 후 양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면서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백악관 예산국의 대니 위펄은 예산 삭감이 즉각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.

■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합의를 촉구하였으나 세수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과 세수확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공화당측이 대립하면서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함.

- 오바마 대통령은 2월 25일 시퀘스터가 국방, 보건, 교육 등에 미칠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시퀘스터에 따른 피해를 알리는데 주력한 반면 공화당 측은 이를 정치선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주문함.
- 상원의 경우 민주당은 농산물보조금을 축소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증세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, 연방기관들이 유연하게 재정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.

■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미국경제의 충격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,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-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충격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경제성장률 저하와 이로 인한 저금리 지속이 보험산업의 성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충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.

(Financial Times 등)